화순군, 군정 이끌 '군민 체감형' 시책 발굴

민선 8기 역점 신규시책 98건
지역 관광·농업·경제·환경·분야
적정성 검토 내년 본예산 반영
미래 발전 선도 실행계획 수립

화순군이 지난 10일 내년도 군정을 이끌 군민 체감형 시책 발굴을 위해 '2025년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민선 8기 역점과제를 실현하고 공약사업을 내실화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신규시책 98건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발굴된 관광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동복면 연둔리 마을숲~김삿갓 유적지 관광벨트 조성사업 △화순읍 관광자원을 활용한 축제 클러스터 구축 △연계형 화순 특화 관광상품 개발 등을 추진해 화순군의 주요 관광자원 간 연계뿐만 아니라 광주 동구 등 인접 지자체와 공동으로 관광상품을 개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 추진 △소농 밭작물 활성화 지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비용 지원 확대 등 소규모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작물 육성 지원을 통해 부자 농촌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검토됐다.

경제 분야는 △기업 박람회 참가 지원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QR코드 결제) 도입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복지·환경 분야에서는 △화순지역자활센터 다회용기 렌털 서비스 제공 △취약지역 음식물류폐기물 수거구역 확대 운영 등 저소득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책이 발굴됐다.

읍면에서는 △화순읍 복암선 맨발걷기길 조성 △한천면 1마을 1어르신 지킴이단 운영 △백아면 찾아가는 검진센터 운영 등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했다.

지난 10일 화순군이 '2025년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화순군 제공

올해에는 '주민참여시책' 공모를 통해 젊은 세대의 독서량 증진을 위한 독서활동 지원, 화순 스탬프투어 등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책들도 보고됐다.

발굴된 시책은 소요 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해 2025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 활동 등 시책 추진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지역의 미래 발전을 선도하고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전통혼례 의상 체험부스 운영
함평군, 국향대전서

함평군은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에서 전통혼례 의상대여 체험부스를 운영해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고 14일 밝혔다.

함평군은 지난해 국향대전에서 장수부부 금혼식 행사로 많은 관심을 모은 데 이어 올해는 장수부부 전통혼례 의상대여를 통해 관광객들의 향수를 자극한다. 참여 관광객들에게 사진 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족과 연인 등 소중한 이와의 추억도 함께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는 모든 관광객의 참여가 가능하며 체험료는 2000원으로 수익금 전액은 유니세프에 기부될 예정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부스에는 전통혼례복 체험 관광객을 위한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다"며 "축제장에서 색다른 경험을 원하는 많은 관광객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함평국화의 겨울이야기'를 주제로 18일부터 11월3일까지 함평 엑스포공원과 함평읍 시가지 일원에서 열린다. 함평=신재현 기자

나주시 공산면 상방1리 상구마을 주민들이 노후 가옥에 살고 있는 이웃을 위해 집수리 활동을 펼쳤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공산면, 집수리 봉사활동

나주시 공산면(면장 노세영) 상방1리 상구마을 주민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집수리'를 펼쳤다.

14일 나주시 공산면에 따르면 이번 집수리는 지난 폭우로 인해 마을 내 노후 가옥이 붕괴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이 힘을 모아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실시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빈집을 알선하고 성금 250만원을 모아 보일러를 설치하고 공산면행정복지센터의 복지기동대 사업을 통해 도배와 장판까지 새로 교체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오병엽 상구마을 이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주었다"며 "집수리 기술을 가진 주민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아름다운 공간을 탄생시켜 기쁘다"고 말했다.

노세영 공산면장은 "이웃을 돕기 위해 기꺼이 나서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따뜻한 공산면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화순군, 17일까지 추가 접수

화순군은 경유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오는 17일까지 추가 접수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약 4대이며 지원 금액은 장치 종류에 따라 저감 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화순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 △2년 이상 의무 운행이 가능한 차량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미참여 차량 등이어야 한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 저공해 조치에서 신청을 하면 되고 방문 접수의 경우는 화순군청 별관 2층 환경과에서 가능하다. 화순=김선종 기자

국립장성숲체원·국립고창치유의숲, 소방 훈련 활동
소방 능력 배양 목적으로 실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국립장성숲체원·국립고창치유의숲은 지난 7일 국립장성숲체원 일대에서 장성119안전센터, 국립방장산자연휴양림과 함께 합동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숲체원 내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운영에 따른 화재 진압 및 고객 대피 유도 등 국립장성숲체원 자위소방대의 소방 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됐다.

이날 훈련에서는 △화재 발생에 따른 상황 전파 △소화기 및 산불진화기계화 시스템을 활용한 화재 진화 △인명 대피 및 구조활동 등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임직원들의 화재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정종근 국립장성숲체원장은 "임직원들은 숲체원에 방문하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소방 훈련을 통해 화재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고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법정 계량기 정기 검사
담양군, 공정거래 질서 확립

담양군이 24일부터 31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기 검사를 추진한다.

14일 담양군에 따르면 검사는 담양읍, 봉산면 등 12개 읍·면사무소에서 진행하며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다수의 저울이 있는 경우에는 2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 검사(소재 검사)를 신청하면 11월 4일부터 5일까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정기 검사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년마다 시행되며 이번 검사는 귀금속 판매업소, 정육점, 대형 유통점 등에서 사용하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저울을 대상으로 한다.

2023년 또는 2024년에 구매했거나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 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아 사용 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 검사는 저울의 정확성과 변조 여부를 확인하며 합격한 저울에는 합격표시가 부착된다. 반면 불합격한 저울은 사용 중지 표시가 부착되며 폐기하거나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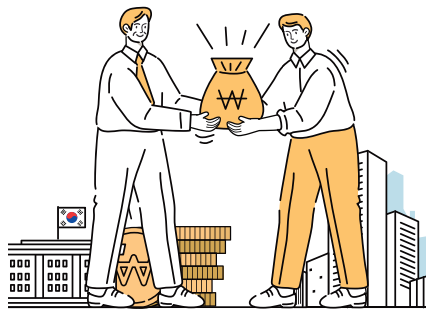
담양=신재현 기자

중소기업 특례 보증 금융지원
영광군,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김정섭)은 NH농협 영광군지부와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특례 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악화된 경기 상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지원 대상은 관내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이다.

농협이 최근 1년 매출액이 20% 범위에서 중소기업 최대 30억원, 소상공인 최대 5억원 한도의 대출금을 지원하며 영광군에서는 최종 대출금리에서 2%를 이차보전으로 최대 3년간 지원해준다.

신청 기한은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군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신용보증기금 및 NH농협 영광군지부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 보증 금융지원을 통해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